

# 강진 월출산 차문화 천년의 역사 심포지엄 성료



강진군과 이한영차문화원이 지난 1일 강진에 있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 2023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월출산 차문화 천년의 역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강진다인연합회, 강진군내 차 명인, 제다 전승자, 다른 지역에서 온 다인, 차학계 연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크게 주제발표와 주제토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월출산 차문화 천년의 역사'를 주제로 4명의 발표가 진행됐다.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는 '고려시대 월남사의 차와 선'에서 "월출산 일대는 고려시대 차문화의 중심지였다. 그것은 강진이 남송과의 해상무역로 상의 중요 거점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세리 성균관대 조빙교수는 '조선시대 백운동 원림과 차문화 고찰'에서 "백운동 5대 동주 이시현이 다산의 학맥과 다맥을 이어 백운동 차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백운동 원림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차문화의 인문학적 가치를 계속해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오 광주교대 교수는 '한국 근대기 이전

**“월출산 일대, ‘차 문화 융성’ 고려시대부터 차문화 선도”**  
**“한국 최초 차 브랜드 ‘백운옥판차’ 무형유산적 가치 확산”**

영가의 차문화'를 통해 한국 차문화사에서 근대기의 기술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산에서 이시현, 이한영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근대의 차문화사를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 정승호 원장은 '월출산 차문화의 미래 가치'에서 "강진은 한국 최초의 차문화 산실이다. 다산의 최대 정신적 유산인 다산계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차를 주제로 한 체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김대호 순천대 학술연구교수, 이재연 전남도청 학예연구사, 박종오 남도민속학회 회장, 김종철 (재)하동녹차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각각 '월출산 차문화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네 명의 제안 및 토론이 끝난 후 좌장인 마승진 목포대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강진차의 큰 맥을 짚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네 사람의 제안은 앞으로 강진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특히 학술적으로,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좋은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등 지역 내 기관장들도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에 공감하고 긍정적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월출산 일대는 역사적으로 차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차문화를 선도했던 지역이다. 특히 월남마을 이한영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전통 차문화의 지식을 전승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월출산 차문화의 역사성, 전통성을 확인하고 한국 최초의 차 브랜드인 백운옥판차에 대한 무형유산적 가치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한영차문화원에서 열린 '다정한 밤' 음악회와 연계, 개최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강진=김영일 기자



## 진도군, '선진농협 자재센터' 개점식...사업비 23억 투입

진도군 선진농협 자재센터가 지난 4일 군내면 금골 일원에서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점식에는 윤재갑 국회의원, 김희수 진도군수, 장영우 진도군의회 의장, 김인정 도의원, 진도군의원, 농협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선진농협 자재센터는 최근 각종 농자재비용 상승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좋은 품질의 영농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약 23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약 8개월의 건축기간을 거쳐 도·군비 12억원과 사업비 초과분이 포함된 약 11억원은 농협의 기부담으로 올해 7월 연면적 1,494.32㎡(452평) 규모, 지상 2층으로 완공됐다.

1층 판매장은 비료, 농약, 농자재, 일반농기구 등 고품질의 다양한 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취급하고, 2층은 지역 농업인들이 정보교류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장을 조성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완도군 “조기 검진으로 치매 예방”...만60세이상 군민 대상

완도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 조기 검진은 인지 선별 검사, 진단 검사, 감별 검사 등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인 인지 선별 검사는 별도 예약 없이 10~15분 정도면 가능하다.

인지 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 의심군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 후 감별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비용은 무료이다.

센터에서는 선별 검사 결과에 따라 ▲감별·진단 검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 물품(위생용품 13종) 제공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서비스(지문 등록, 배회 감지기 및 인식표 발급) ▲치매 예방·인지 강화 프로그램(치매 가족 교실,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 ▲치매 환자 워터 운영 및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 조기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란다"면서 "센터에서는 고령화 시대 난제인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내일 개막

14일까지 국내 130개 의료기관 참여, 통합의학 체험 운영



장흥군은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7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올해 박람회는 '통합의학의 매카 장흥, 건강한 삶의 장을 열다'란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학병원, 대학, 의료기

관, 지역 보건소 등 130개 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진과 전문가가 참가해 통합의학적 진료 체험을 제공한다.

장흥군은 올해 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통합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

박람회장은 주제관, 통합의학관, 보완대체

의학관, 향노화뷰티관 등 모두 8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주제관에서는 역대 박람회 히스토리, 한방테마 전시관, 명사 초청 건강 강좌와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통합의학관은 양방·한방 내과, 만성질환 성인병, 구강검사, 치매검사 등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마련됐다. 보완대체 의학관에서는 흥채 검진, 근육신경조절술, 카이로프랙틱 등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보완대체의학 체험이 진행된다.

피부 미용 관련 콘텐츠도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향노화뷰티관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상담, 피부노화 검사, 두피마사지 체험, 아로마 손마사지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는 다양한 학술행사가 진행된다.

10일 오후 3시 컨벤션센터 인형관에서 열리는 특강에 '근발생'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최재성 강사가 나와 '우리 역사 속의 의학 이야기'를 전한다.

12일 오후 2시에는 '국민건강주치의' 오한진 박사를 초청해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통합의학박람회는 통합의학을 한자리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박람회"라며, "박람회를 방문해 개인의 건강을 점검하고, 사람 중심의 통합의학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 해남군, 땅끝바다 ‘빨전복’ 소비촉진 할인행사 실시

해남군은 수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 소비 촉진을 위한 구매행사를 실시한다.

해남군 공직자를 비롯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해남에서 생산되는 빨전복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오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15일 현장 수령하거나 택배로 배송할 계획이다.

판매 가격은 평소보다 대폭 할인된 1kg 기준 8~9미 3만5,000원, 11~12미 3만원이다.

특히 15일에는 해남매일시장에서 현장 배부와 함께 현장판매도 실시한다.

해남매일시장 현장판매는 100박스 한정으로 판매하게 된다. 매일시장 상인회에서 협조하여 당일 시장에서 2만원이상 구매할 영수증을 제시하면 추가로 5,000원을 더 할인해 준다. 이날 열리는 매일시장 야시장 행사와 연계해 전북요리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해남 전복은 영양이 풍부한 갯벌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빨전복'이라고 불리며, 맛과 영양성분이 일반 양식 전복에 비해 훨씬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오!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심진흥원

전라남도